

# 안철수 드디어 오늘 등판

### 박근혜·문재인과 '3각 경쟁' 체제로 ... 확실한 집권구상 보여줄지 관심

범야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 확실시돼 대선전 초기구도는 일단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안 원장 간의 '3각 경쟁' 체제로 짜지게 됐다.

하지만, 문 후보와 안 원장이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어 그 외에도 돌발 변수가 잠복해 있어 대선정국의 유동성이 점점 확대되는 형국이다.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측을 공격하며 낯선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18일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원장이 내일 대선출마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문 후보의 지지율에 '컨벤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도록 공수를 쓰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단일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민주당과 문 후보는 측은하기까지 하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음에도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이희호 여사 예방, 전태일 재단 방문 등 언론보도용 행보는 대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민주당 희생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박 후보의 행보는 언론용 광폭 행보로,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꿀 때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이 같은 유동적 대선구도 속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어서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원장이 지난해 9월 초부터 야권의 최대 잠룡으로 부상한 이후 시작된 정치 참여에 대한 고민을 1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그만큼 지지자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국정운영 능력을 갖춘 '정치인 안철수'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이날 "어떤 어젠다를 가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대중도 집권구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존 정치인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와 무당파층을 불러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의 대선후보 수락연설 수준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선 공개된 정치 행보를 극도로 자제해온 안 원장이 직접 대중 앞에 나선다는 점 자체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안 원장은 1년여간 고민의 성과물들을 대중 앞에 펼쳐보이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원장이 대중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 원장의 대명사로 통하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대선은 후보 개인의 역량으로만 돌파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만큼, 안 원장이 정치적 감각을 갖추고 야전에서 앞장서 싸워줄 '장수'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도 주요 관심사다. 19일 기자회견에서는 캠프를 구성할 인물들도 일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지지 단체 '우후죽순'

### 광주·전남 5~10개 활동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기로 한데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외곽 자생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 원장 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다 지지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이후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1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안 원장의 지지모임을 자처하는 단체는 '함께하는 세상 포럼 철수처럼' '철수 산악회' '철수정책개발연구원' 'CS코리아' 등이 있다. 여기에 캠프를 돕는 자정하는 지지단체 등을 합치면 1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일찌감치 전국 조직을 구성한 '철수처럼' '철수 정책개발연구원' 'CS코리아' '철수 산악회' 등은 지난달 2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3층에 중앙본부를 설립·개원식을 가졌으며, 지난 15일에는 화순지역위원회 개원식을 여는 등 등 광주·전남지역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함께 사는 세상 포럼 철수처럼'도 안 원장의 대선 출마 행보가 빨라졌

던 지난 15일 전남대 체육관에서 '안철수의 생각'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청 한양대 석좌교수, 박민서 북독대 교수 등이 '안철수 현상'에 대해 참가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문정현 변호사 등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CS Korea재단 광주·전남지역본부도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최근 회원들이 태풍 피해 성금을 모아 피해지역에 전달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안 원장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안 원장 측은 그동안 "이들 단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혀왔다. 일부 단체들은 각종 행사에 안 원장과 가까운 인사가 참여한다고 홍보했다가 이후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등 혼란을 빚기도 해 '신뢰감'을 잃기도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안 원장의 외곽 지지모임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뤄지고 있을 당시에 문재민 대선 후보를 견제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해왔으며, 출마선언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말바다 민심을 모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리는 '서틀 프랜즈'** '2012세계대학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18일 오후 3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프레(pre)대회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서틀 프랜즈'로 불리는 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게 된다. 오는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염주종합체육관과 빛고을체육관에서 진행되며, 21개국에서 22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남녀 단·복식과 단체전 등 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문재인 "안철수와 단일화 자신"

### 지지율 상승·여론조사 앞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에서 안 원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문 후보 측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안 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그동안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지지율이 가파르

게 상승하고 있다며 안 원장과의 단일화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번의 지역 순회 경선에서 문 후보의 진정성이 검증받으면서 과거 야권의 지지층이 되돌아 오고 있어 지지율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전화 임의결기(RDD)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1.6%포인트)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문 후보 지지율은 41.9%로 안 원장(36.9%)을 5.0%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7월 양자대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다.

또한, 모노리서치가 지난 13~14일

유권자 14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도 95%, 오차 ±2.54포인트)에서는 문 후보가 48.6%로 안 원장(31.8%)을 크게 이겼다.

문 후보 측은 "지지율 상승에 탄력이 붙은데다 민주당 지지층이 문 후보에게 쏠리고 있어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순회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 지지율의 주도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안 원장이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 문 후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문 후보가 상승세를 타거나 안 원장과 지지율이 앞치락뒤치락할 때 안 원장이 등장해 상승세가 꺾이고 추락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 측은 추석 전에 다자구도에서도 안 원장을 앞선다면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추선 전까지 1차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윤 대변인은 "지지율이 앞선 상태로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추석 후에도 이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쥌 수 있다"며 "추석 전후 10~15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PAR3 골프장, 연습장 매매

## 화순 전남대병원 3분거리

- 입지** | 화순 전남대 병원 3분거리
- 규모** | 전체부지면적 146,411㎡ / 사업승인면적 130,718㎡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40타석 비거리 170yd
- 편의시설** | 클럽하우스 1,552.80㎡ (라커룸, 샤워실, 레스토랑)  
실외연습장 1,654.92㎡ (라커룸, 강의실, 골프샵)  
주차공간 : 160대 주차
- 특이사항** | 감정가 82억원 / 매매가 65억  
現회원 1,000명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문의처 010-9349-5555 · 062-446-5000

## 빛의만평

- 김중두



언니는 '곤혹 스타일'?!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